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8.15(금) ~ 2025.8.21(목)

제공일시 2025 8 29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8.15(금) ~ 2025.8.21(목)

글로벌 정책

1. 美 재무부, 태양광·풍력 '공사 시작' 규정 지침 발표

- 미국 재무부가 태양광·풍력 프로젝트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'공사 시작(Start of Construction)' 규정 지침을 발표함. 이번 지침은 48E 투자세액공제(ITC)와 45Y 생산세액공제(PTC) 적용을 받기 위한 공사 시작 요건과 안전지대(safe harbor) 조항을 포함함
- 기존에 1.5MW(메가와트) 이상 태양광 프로젝트에 적용되던 '자본지출 5% 테스트'가 폐지되면서, 프로젝트 개발 착수 입증 방식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됨
- 미국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조치가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으며,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

[\(투데이에너지 2025.8.20\)](#)

2. 日, 경제안보법 개정해 반도체 등 중요물자 기업 해외사업 지원

- 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(경제안보법)을 개정해 반도체·희토류 등 중요물자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. 내년 1월 정기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, 지원 대상에는 선박 보수 거점 확보·운영을 포함한 조선, 고속통신 '5G'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
- 일본 기업이 현지 정부나 기업과 협력하는 해외 사업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공급망 안정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책으로 추진됨

[\(뉴시스 2025.8.19\)](#)

3. 美 법원,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 효력 인정...2026년 대기업 공급망 배출량 공시 불가피

-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주요 경제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. 기각 대상은 '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(SB 253)'과 '기후 관련 금융위험 공시법(SB 261)'으로, 법원은 무효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
- 이번 판결로 공시 의무는 당초 계획대로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미국 내외 대기업 및 캘리포니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 됨

[\(임팩트온 2025.8.19\)](#)

국내 정책

1. '자원확보·유통·생산' 공급망 전주기 맞춤형 지원...정책금융 50조 투입

- 정부가 원자재 확보와 유통·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 전 주기에 걸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
-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, 올해 45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, 공급망안정화펀드(1조8000억원)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 펀드(6000억원)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힘
- 초기 단계에서는 핵심 광물·원자재 개발을 지원하고, 운송·유통 단계에서는 경제안보 서비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, 조선업계의 유지·보수·운영(MRO) 분야까지 공급망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됨

[\(해럴드경제 2025.8.20\)](#)

2. 금융위, 중대재해 기업에 '대출 불이익' 준다

-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규모·금리·만기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힘
-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"중대재해 근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금융도 기여해야 한다"고 강조함
- 권 부위원장은 "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"이라며 "기금,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톱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음

[\(한겨레 2025.8.19\)](#)

3. '기후약당' 꼬리표 벗기...내년 기업 배출권 유상 비중 상향

-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중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%에서 내년부터 발전 외 부문은 15%,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50%로 단계적으로 상향함
- 2026~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5년 대비 82% 수준으로 축소돼 기업의 감축 압력이 강화됨
-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유도하고,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탈석탄 추진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

[\(한국일보 2025.8.15\)](#)

글로벌 기업

1. 리튬 자원 보고 노린다...BYD, 아르헨 공장 설립 협의

-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(BYD)가 아르헨티나 정부와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예비 협의에 착수함
- 비야디는 브라질에 이어 남미 내 두 번째 생산 거점 확보를 추진하며, 현지 리튬 광산과 연계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

[\(에프엔투데이 2025.8.20\)](#)

2. 반 오오르드, 첫 바이오-LNG 병커링 성공...해양 건설업 넷제로 신호탄

- 네덜란드 해양 건설사 반 오오르드(Van Oord)가 독일 엘베강에서 준설선 '복스 아리아네'호를 통해 첫 바이오-LNG 병커링에 성공함
- 회사는 이번 시도가 단순한 연료 교체가 아니라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(SBTi)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함

[\(투데이에너지 2025.8.20\)](#)

3. 1864개 대기업 조사, 소비재·IT 인권 공시율 급등...부동산·헬스케어도 개선

- 글로벌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산하 ISS-코퍼레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억달러 이상 대기업 1864곳의 인권 공시와 실사 관행이 2025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
- 특히 유럽·중동·아프리카 기업의 인권정책 공개율은 2024년 77%에서 2025년 81%로 확대되며, 협력사 행동강령과 인권 조항 반영 사례가 늘고 있음
- 기업들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인권 침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사 행동강령을 마련하고, 계약 조건에 인권 조항을 반영하며, 독립적인 감사 절차를 확대하는 추세임

[\(임팩트온 2025.8.20\)](#)

4.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, 탄소제거기술 스타트업 '에퀴틱' 투자

-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미국 스타트업 에퀴틱의 시리즈A 투자 라운드(1160만달러)에 참여함
- 조달 자금은 탄소제거(CDR) 상업 시설 건설과 기술 상용화에 사용될 예정이며, 에퀴틱은 대규모 탄소 제거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

[\(더구루 2025.8.20\)](#)

국내 기업

1. 포스코, '기업형벤처캐피탈 1호 펀드' 500억 결성

- 포스코가 500억원 규모의 '포스코 기업형벤처캐피탈(CVC) 1호 펀드'를 조성했으며, 디지털 전환·에너지 절감·탄소저감·재생에너지 분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
- 전체 펀드의 20%는 유망한 해외 벤처기업에도 투입해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의 연계 강화에 나섬

[\(뉴스프리존 2025.8.20\)](#)

2. 한화오션·현대건설, 해상풍력 EPC 파트너십 체결

-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해상풍력 EPC(설계·조달·시공)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부터 협력에 착수함
- 한화오션은 직접 건조한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(WTIV)을 투입해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며, 2028년 현장 투입을 목표로 함

[\(투데이에너지 2025.8.19\)](#)

3. SK이터닉스, 1556억 규모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주

- SK이터닉스가 파주에코그린에너지와 1556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함
- 이는 총 30.99MW(메가와트) 규모 발전소로, 계약금액은 SK이터닉스 전년도 매출의 46.86%에 해당하며 2026년 11월까지 진행됨

[\(블로터 2025.8.19\)](#)

4.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, 스페인 공장 환경 논란 직면

-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카탈루냐 지역에 추진 중인 중인 배터리 소재 공장이 일자리 창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·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함
-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 사업을 일자리 1400개 창출효과와 스페인을 유럽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기회로 보고 지원에 나섬. 시민사회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과 농업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지에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됨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8.18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8.15(금) ~ 2025.8.21(목)

제공일시 2025.8.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.398.6432

중국 상반기 탄소 배출 1% 감소, 석탄 화학 산업 급팽창이 구조적 위험 요인

- 2025년 상반기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% 감소했음. 이는 태양광·풍력 발전 확대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분석됨
- 전력 부문 배출은 3.2% 줄었고, 청정에너지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의 40%로 상승해 전년도 36%에서 크게 확대됨
- 상반기 신규 태양광 설비는 212GW(기가와트)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, 5월 한 달에만 93GW가 설치돼 초당 100장 수준의 패널이 깔린 것으로 집계됨
- 태양광 발전량은 170TWh(테라와트시), 풍력은 80TWh, 원자력은 20TWh 증가했음.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처음으로 수력 발전량을 넘어섬
- 철강과 시멘트 부문 배출은 각각 3%, 4% 감소했으나, 전기로(EAF) 비중은 9.8%로 오히려 낮아져 정부 목표치(15%)에 크게 미달함
- 반면 석탄 화학 산업은 석탄 소비량이 20% 증가하며 배출 급증을 견인함. 2024년에도 이미 10% 늘어난 바 있음
- 석탄 화학 부문은 2024년 기준 6억90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해 중국 전체의 6%를 차지했으며, 2020~2024년 동안만 전체 배출을 약 3%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됨
- 2025~2029년 사이 매년 3700만 톤 규모의 설비가 추가될 전망이며, 이에 따라 산업 배출은 40% 이상 증가할 수 있고 연간 최대 2억5000만 톤의 탄소가 추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음
- 영국의 비영리 기후 연구단체인 카본 브리프(Carbon Brief)는 재생에너지가 성장함에도 석탄 화학 산업 확장이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며,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탄소집약도 개선, 석탄 소비 억제, 전기로 비중 확대 등 핵심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.
- 카본 브리프는 15차 계획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NDC)에서 보다 높은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

[\(임팩트온 2025.8.21\)](#)